개발과 보존의 사이: 일본 오제(尾瀨)의 관광개발과 자연보호운동*

문옥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 논문의 목적은 중부 일본에 위치한 고원 늪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관광지의 하나인 오제(尾瀨)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관광개발과 환경보호 간의 갈등적 관계를 극복하고 소위 '지속 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의 개발이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오제는 본격적 관광지로 개발되기 시작한 이후 1970년대 들어 일본 자연보호운동의 현장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주민들과의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그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결과적으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지역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선 무엇보다 오제를 두 가지의 큰 위협, 즉 1950년대 추진되었던 수력발전을 위한 댐의 건설계획 및 1970년대의 자동차도로의 건설계획을 저지할 수 있었던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오제는 자연보호단체들의 끈질긴 노력과 주민들의 인식전환 및 관련주체들간의 합의도출을 통하여 1960년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크게 훼손되기 시작했던 자연환경을 회복하는데도 많은 성과를 거둔 지역이다.

이 연구에서는 오제의 관광개발 과정에 관련되었던 주체들인 주민, 국가, 지방정부, 환경운동가 및 관광객간에 존재하는 갈등관계의 내용을 밝히고, 나아가 각 주체들간의 갈등이 해결되어 합의가 도출되는 역학을 경험적으로 추적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하여 합의의 도출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관심과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의 능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나 외부의 환경운동가가 아닌 지역주민 스스로가 주체화 되어 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오제의 사례는 우리에게 정부의 규제나 운동가들의 요구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주체적인 인식수준이 개발과 동시에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이르지 못하면 개발과 보존의 균형은 언제라도 깨어지게 되며 따라서 관광개발의 '지속가능성'은 구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Ⅰ. 들어가는 말

이 글의 중심 주제는 관광에 관한 인류학적, 사회학적 연구들에서 가장 핵심적 쟁점의 하나인 개발과 보존의 문제이다. 무분별한 관광개발은 많은 지역에서 자연파괴, 환경파괴, 문화의 물상화에 따른 주민소외, 전통의 파괴 내지 왜곡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역사, 자연, 문화를 보존하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의

*이 글은 교육부 해외지역 공동연구과제인 『관광연구를 통한 일본문화의 분석: 역사적·인류학적 접근』(1996-1998, 연구책임자 문옥표)의 2차년도 연구결과로 제출된 것의 일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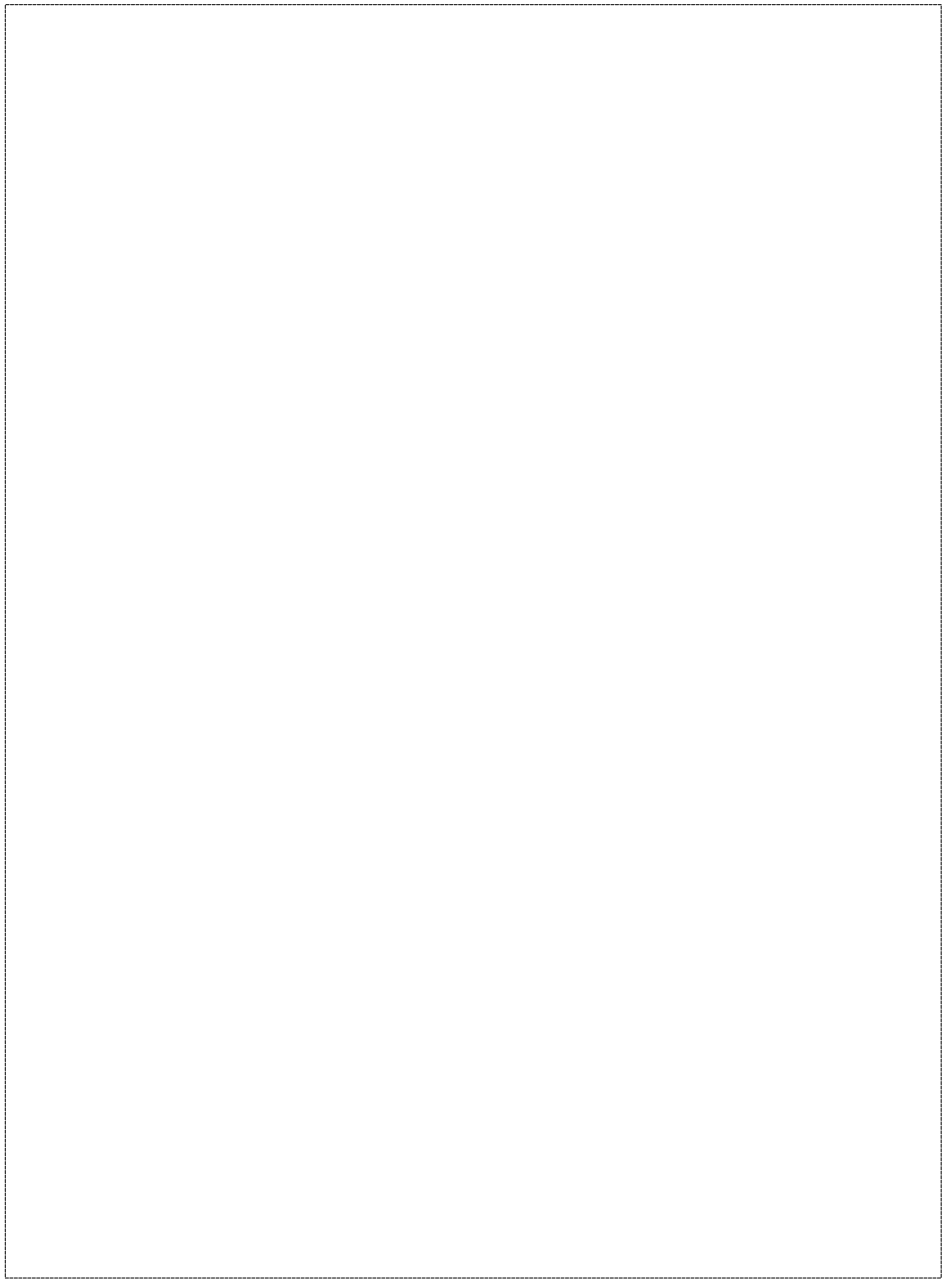
모색이 요구된다. 흔히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이라 하여 자원을 해치거나 고갈시키지 않고, 관광객에게는 즐거움을 주면서도, 지역주민의 생활은 침해하지 않는 방향의 소위 「환경+생활+관광」의 공존모델이 논의되고 추구되고 있으나, 현실에서 이 세 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며 균형 있는 발전을 유지해 간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관광에 관련되는 모든 주체들 즉 관광객, 주민, 환경운동가, 그리고 지역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정부와 보다 넓은 수준에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중앙정부 부처들의 입장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도 관광산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주민들과 그렇지 않은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다르게 표출되며, 마찬가지로 관광객도 관심분야나 행태(行態)가 매우 다양한 까닭에 그들 모두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하여 관련된 제 주체들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일회적인 합의도출로 문제가 해결되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의 사례를 보면 관광에 관련된 주체들인 주민, 국가, 지방정부, 환경운동가, 관광객들의 관심과 이해관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지속가능한 관광'의 성공여부는 바로 변화하는 관심과 이해를 조정하여 합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정부나 외부의 환경운동가가 아닌 주민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것은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또한 주민들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규제나 운동가들의 요구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주체적인 인식수준이 그에 이르지 못하면 개발과 보존의 균형은 언제라도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한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한 합의가 도출되고 유지되어 가는 과정과 그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가 행해진 오제가 위치한 일본 群馬縣 片品村 지역은 필자가 19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연구해 온 지역이다 (Moon, 1989; 문옥표, 1994; 1998). 해발 800미터에 위치한 片品村은 전 면적의 97%이상이 경작이 불가능한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촌으로, 관광산업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매우 척박하고 빈한한 마을 중의 하나였다. 1950년대 이후 오제관광이 점차 대중화되고, 1960년대 들어 스키장이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여름의 오제관광과 겨울의 스키관광으로 연중 관광객이 들어와 경제적으로도 크게 활성화된 지역이다. 이 논문은 문헌연구 자료 이외에 필자의 그간의 연구결과와 1998년 5월에 실시된 약 2주일간의 추적 방문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

II. 오제(尾瀨) 관광의 성격과 특징

1. 관광지로서의 오제의 성격



오제(尾瀨)는 일본 중부의 군마현(群馬縣) 카타시나무라(片品村)의 북부와 후쿠시마현(福島縣) 히노에마타무라 (檜枝岐村) 남서부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고원지대로 표고(標高) 2,000미터가 넘는 여러 개의 산(至佛山, 燧山, 景鶴山 등)과 그 주변의 원시림, 그리고 천연의 습원(濕原), 호수, 못(沼), 삼림이 밀집되어 있는 자연관광지의 하나이다 (위의 지도 참조). 특히 고층 습원지대에 밀집하여 자생하는 미즈바쇼(水芭草)를 포함하는 다양한 고산식물들이 '꽃구경(花見)'을 즐기는 일본인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자원이 되고 있으며 가을에는 또한 자연림의 단풍이 장관을 이루는 지역이기도 하다. 오제지역내의 습원과 호수, 그리고 촌의 북동쪽에 토치기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마루누마(丸沼), 스가누마(菅沼) 등은 1934년에 이웃 토치기현(栃木縣)의 닛코(日光)와 더불어 「닛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오제가하라(尾瀨ヶ原)라고 하는 늪지 평원지대와 오제누마(尾瀨沼)라고 하는 못은 그 곳에 서식하는 희귀식물들을 보호하기 목적에서 1938년에 「특별지정지역」으로, 1953년에 「특별보호지구」로, 그리고 다시 1963년에는 오제 지역전체가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오제를 설명하는 관광책자에는 "푸르른 녹음, 맑고 투명한 새들의 지저귐, 습원(濕原)에 불어오는 바람의 향기. 정말로 볼만한 자연이 숨쉬고 있는 오제. 사계절 따라 변화하는 자태가 하나하나 아름다운 곳"으로 소개되어 있다 (JTB, 1998: 19). 그러나 이러한 풍요로운 자연이 오늘날에도 관광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기까지 오제는 몇 차례 중요한 개발의 위기와 그에 대한 반대운동을 경험하였으며, 또한 관광을 통하여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는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의 하나이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오제에서 만나는 '자연'은 '보전된, 있는 그대로의 자연' 그 자체라기 보다는 '복원된 자연'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명치초기까지 거의 처녀림의 자연상태에 있던 오제지역이 관광객의 유입 이후 지역에 따라서는 복원불가능한 정도로까지 훼손되었던 것을 환경운동가, 학자, 주민 관광객들의 협력으로 상당한 정도로 복원하였거나 복원 중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오제지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습원(濕原)이란 본래 인간의 발길에 매우 취약한 땅이라 한다. 예를 들어 습원을 이루고 있는 이탄층(泥炭層)은 일년에 1mm정도밖에 성장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들어가 밟기 시작하면 몇 cm 도 한순간에 내려앉게 되며 그것은 곧 100년 정도 걸려 자란 토지가 한번에 내려앉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이렇게 파괴된 이후의 나지회복(裸地回復) 작업은 많은 시간과 예산을 필요로 한다. 일본정부 및 군마현에서는 1966년부터 '특별기념물' 보호의 차원에서 이를 시행 중에 있으며, 한편 관광객들이 통제 없이 아무 곳이나 들어가 밟아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오제누마에서 오제가하라에 이르는 습원지대 전역에 통나무를 반으로 잘라 깐 '나뭇길(木道)'을 설치하여 그곳으로만 지나다니도록 조처하였다.

오제(尾瀨)라는 지명이나 인명은 일찍부터 역사기록에 등장하며, 오제를 지나 죠슈(上州, 群馬縣의 옛지명)와 후쿠시마현(福島縣)의 아이즈(會津)를 잇는 아이즈가도(會津街道, 會津에서는 沼田街道라 함)는 헤이안시대(平安時代) 말기부터 있었다 한다. 이 도로

는 토쿠가와 시대(德川時代, 1603-1868)에 들어 교역로로 확장, 정비되어 활발히 이용되었으며, 특히 군마현(群馬縣) 카타시나무라(片品村)쪽에서 오제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토쿠라(戶倉)에는 세키쇼(關所)가 설치되어 있어 많은 여행자, 상인들이 지나는 도로였다. 아이즈 가도는 또한 명치유신을 즈음하여 관군(官軍)과 막부군(幕府軍)의 치열한 접전지대이기도 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제누마의 서쪽으로는 사람들이 들어간 흔적이 거의 없었으며 간혹 수렵인들이나 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았을 뿐인 원시림의 지역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오제가 외부에 알려지고 관광객들이 유입되기까지에는 명치기인 1889년 오제지역에 처음 들어가 개산(開山)한 후 지금까지 3대째 오제지역내에서 숙박시설인 야마고야(山小屋)를 운영해 온 히라노초오조오(平野長藏)씨와 그의 후손들의 노력이 있었다 (後藤 允, 1984). 히라노가(平野家)의 사람들은 오제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데 뿐 아니라 몇 차례의 개발위기로부터 오제를 지켜 온 오제 환경보호역사의 중심인물들이기도 하다. 관광지로서의 개발과정과 자연보호운동에 관해서는 아래의 제 3절 "관광개발과 자연환경보호운동"에서 상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표 1> 1996년 월별관광객 추계(推計)*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합 계
1,439	50,341	208,363	154,149	99,485	46,417	85,504	1,825	647,523

*片品村觀光課의 자료

오제는 다른 어떤 관광지보다도 시즌이 긴 지역의 하나이다. 4월 하순에서 5월초의 연휴 경에 되면 오제누마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오제로 들어가는 버스들이 운행을 시작하고, 보호지역 안의 고야(小屋)들도 영업개시를 준비한다. 이른 곳은 이 때부터 손님을 받는 곳도 있으나 아직은 눈이 쌓여 있고, 기온이 급작스레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때문에 겨울 산의 등반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이나 오제여행을 즐길 수 있다. 본격적인 관광시즌은 눈이 다 녹고 눈 밑에 숨어 있던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 5월 하순경에 시작되어 10월하순 정도까지 계속된다. 매년 미즈바쇼(水芭草)가 절정이 되는 시기에 맞추어 5월말에서 6월초에 개산제(開山祭)와 더불어 '산열기(山開き)'를 하며,[1] 개산제 때에는 보통 신관(神官)이 와서 제사지내고 신주(神酒)를 나누어 마신다. 오제는 산이 깊고 기후변화가 심하여 매년 조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까닭에 이러한 의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정화의례(淨化儀禮)의 성격을 지닌다. 꽃구경의 시즌은 5월말에서 6월20일

1) 미즈바쇼(水芭草)란 천남성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草本)으로 한지(寒地)의 습한 땅에 군재(群在)하는 식물이며, 영어로는 skunk cabbage라 한다. 오제의 습지대에 널리 퍼져 6월에 장관(壯觀)을 이루는 이 꽃은 보통 5월말부터 피기 시작하나 필자가 조사를 위해 현지를 방문했던 1998년에는 엘니뇨의 이상기온으로 다른 때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5월 22일 개산했음에도 이미 절정이 지난 다음이었다.

경까지 계속되며 이 시기가 오제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때이다 (위의 <표 1> 참조).

그 후 장마가 이어지고 그것이 끝나는 7월 하순경까지는 손님이 줄어들지만 거의 매일 계속되는 비속에 여러 가지 산 꽃들이 줄이어 피기 때문에 이 시기 오제를 방문하는 사람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늪지대인 만큼 특히 우기(雨期)에는 진흙땅에 적합한 신발과 비옷, 우산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여름에는 또한 천둥번개가 많으므로 항상 예보를 듣고 산 위에서 우뢰를 만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8월 하순경이 되면 벌써 아침저녁 기온이 많이 내려가며, 9월에 들어가면 완전히 가을에 접어들어 단풍시즌이 시작된다. 먼저 서쪽의 습원쪽의 풀들이 황금색으로 물드는 것에서 시작하여 주변의 산으로 퍼져가며 타는 듯한 단풍이 장관을 이루고 관광객도 다시 늘기 시작한다. 10월에 들면 주변의 산들에 이미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며 10월 중순이 지나면 오제지역내의 숙박시설들도 영업을 끝내고 하산(下山)할 준비를 시작한다. 11월 중순경이 되면 폐산제(閉山祭)와 더불어 '산 끝내기(山のお終い)'를 하고, 오제지역내의 숙박시설들도 모두 문을 닫는다. 그 후에는 일반 관광객을 산에 들어갈 수 없으며, 눈 속에서 텐트 치고 지낼 수 있는 전문적 겨울 등산객들만 입장이 허용된다.

2. 오제관광의 역사적 전개

오제는 명치초 히라노쵸오조오(平野長藏)에 의해 개산(開山)된 이후에도 일반 대중들이 찾는 관광지는 아니었다. 오늘날 오제는 늪지대에 군락하는 미즈바쇼라는 꽃을 보는 5월말 6월초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며 많을 때는 한 달 동안에 20만 명까지도 들어오지만 (위의 <표 1>참조), 1940년대까지만 해도 오제에 미즈바쇼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오제의 한 고야에서 40여년이상을 일 해 온 한 주민의 말을 빌면 1945년만 해도 한 해에 1500명만 오면 좋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오제를 개산하였던 히라노가(平野家)의 2대째인 초오에이(長英)씨는 오제를 좀 더 외부 사람들에게 알리고 조금이라도 관광객을 유치해 보기 위해서 오제의 사계를 찍은 영화를 만들어 동경에 가서 상영하는 선전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한다.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당시 일본산악회에서 히말라야의 마나스루 봉을 정복한 것을 계기로 등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일반에게 생겨나면서 오제를 찾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즈음하여 (1947년) 한 전력회사에 의해 오제지역 일대를 댐으로 하는 발전계획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반대운동이 일어나면서 매스컴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도 오제를 외부에 알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자연보호의 관심에서 "전기를 얻을 것인가, 잠자리를 볼 것인가"라는 구호가 등장하였으며 일반의 관심도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오제관광의 역사로 볼 때 이 시기는 제1차 오제 관광 붐으로 일컬어질 수 있다 (石弘之씨의 면담자료).

그러나 본격적 오제관광은 1949년 NHK 라디오에서 '여름의 추억 (夏の 思い出, 江間

章子 作詞, 中田喜直 作曲)'이라는 오제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한 편의 가요가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2] 후에 중학교의 음악교과서에까지 실릴 정도로 유명해진 이 노래는 오제가 관광지로서 일반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이었다. "여름이 오면 생각나는 곳, 아득한 오제, 머나 먼 하늘..."로 시작되는 이 노래로 오제는 아주 로맨틱한 곳으로 일반대중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는 제 2차 오제관광의 붐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오제를 찾는 사람들은 단순한 관광객이라기 보다는 산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자연'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었으며 "산에 놀러 가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요 붐 이후에는 오제관광이 일반으로 확대되면서 관광객이 갑자기 늘어 1951년에는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카타시나무라(片品村)에서는 일본인들의 전통적 여행관행의 하나인 꽃구경 (花見)의 인기에 호소하고자 오제에 자생하는 미즈바쇼를 상품화하여 선전하는 데 주력하여 "꽃구경을 겸해 산에 놀러오는" 가벼운 하이킹족들의 유치에 크게 성공하였다. 이러한 관광개발전략은 후에 환경운동가들의 비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미즈바쇼의 개화(開花) 시기에 맞추어 지나치게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오제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5-6월에 주말에 집중하는 경향을 낳게되었으며, 이것이 장기간 계속됨으로써 소위 '자연의 과잉이용(過剩利用, overuse)'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보호단체들에서는 미즈바쇼만을 강조하는 관광개발을 계속하면 결국 오제관광은 "끝이 나게된다(行き詰める)"고 주장하며, 일년 중 고르게 분포된 '가이드 투어'와 같은 보다 질을 높인 관광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제3차붐은 1970년 이후 도로건설 반대운동이 일어나면서 전국의 매스컴이 오제의 문제를 다루게 된 이후의 일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자연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일게되었다. 1970년 당시 오랫동안 오제의 환경감시원으로 일하였던 한 주민에 의하면, 이 당시 관광객이 급증하게 된 원인 중 의 하나는 자연보호 논쟁이 격심해짐에 따라 한 때 오제의 입산이 전면적으로 금지될지 모른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적도 있으며, 그러자 "지금 안 가면 오제를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오제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 한다 (梅澤照三씨 면담자료). 오늘날 오제관광은 관광객 층이 한층 다양화되어 거의 모든 연령층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최근 몇 년간 60대, 70대의 이미 은퇴한 연령의 중고년층이 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다 (片品村 관광협회장과의 면담자료).[3]

---

2) 작사자인 江間章子씨는 오제를 전국에 소개한 공적으로 1998년초 片品村 의회에서 가결된 名譽村民條例에 의해 명예촌민 제 1호로 결정되어 1998년 오제 개산일의 하루 전날인 5월 20일 片品村의 문화센터에서 촌민증 증정식 및 음악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한 신문사와 인터뷰에서 이 노래의 가사를 지을 당시 한 번도 오제를 방문해 본 적이 없으며 단지 미즈바쇼가 피는 모습을 상상하여 지은 것이라고 고백하였다 (每日新聞 全國版, 1998년 5월 22일자).

3) 관광협회란 주로 숙박시설. 드라이브인, 토산품점 등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원제로 결성한 민간단체이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광고등 촌의 관광산업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일본의 어느 여행지를 가도 두드러지며 그것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의 생활양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옛날처럼 "집에 틀어 박혀 아이나 봐 주는"생활이 아니라 밝은 색의 옷을 입고 친구들과 어울려 새로운 양식으로 즐기고자 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히 오제를 찾는 중고년층의 관광객들은 대부분 지금으로부터 40년정도 전인 1950년대 중반 오제관광이 처음 대중화되기 시작하였을 때 10대, 20대의 학생으로 오제를 방문하여 걸어다녔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라 한다. 그때는 오제에 오기가 힘들었고 걷는 것도 많아 젊은 사람이 아니면 오기 힘들었으나 지금은 여러 코스가 개발되었고 나뭇길들도 잘 정비되어 있어 훨씬 접근이 쉽다. 이들 중고년층들은 대부분 꽃구경 목적의 하이킹 감각으로 초여름에는 미즈바쇼를 보러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러 오제를 찾는다. 산을 오르기보다는 대개 정해진 나뭇길을 따라 가볍게 걸어다니다 나가서 근처의 온천에 머무는 형태로 오제 안의 야마고야에 머무는 경우는 드물다.

중고년층 이외에 오제관광의 다수를 점하는 또 하나의 그룹은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그룹이다. 오제는 자연관광지로 그간의 자연보호운동 및 복원운동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오제지역은 또한 자동차가 없이 장거리를 걸어야 하고 또 물자가 제한되어 고야(小屋) 등에 머물더라도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 하므로 그 자체가 자연상태의 보존 및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공부가 된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카타시나무라(片品村)는 관광산업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성공한 지역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300-400만의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으나,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 곳의 관광은 오제가 중심이었다. 오제관광은 일찍부터 제도화되어 있었으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단체여행객들은 대개 밤열차로 누마타(沼田) 역에 도착하여 야행(夜行)버스를 타고 오제의 근처인 오오시미즈(大淸水)나 후지미시타(富見下)까지 들어가 그곳서 숙박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오제에서 산책한 후에 저녁 5시정도 출발하여 다시 夜行버스로 나가는 식이었던 까닭에 오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촌내의 다른 주민들은 전혀 관광객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 1961년 현재 카타시나무라(片品村)내의 숙박시설은 오제지역내에 있는 15개의 고야들 이외에는 떠돌아다니며 장사하는 행상들이 머무는 여인숙이 몇 개 있었을 뿐이었다. 덕분에 벽지산촌인 카타시나무라(片品村)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어도 오제는 일본사람이면 누구든 들어본 적이 있는 유명한 지역이었다. 어떻게 보면, "카타시나는 오제를 팔아서 살아왔다"고도 볼 수 있다 (관광협회장의 면담).

片品村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1996년도 오제의 개산(開山)은 다른 해보다도 일주일 정도 늦은 6월 8일 이었으나 그 해 한 해동안 오제에 들어간 관광객의 수는 총 64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오제관광은 5월말-6월초 '산열기' 직후부터 약 한달 동

활동을 한다.

안 많은 사람이 몰리며 그 다음 6월 하순부터 7월까지는 보통 관광객이 뜸해지는 것이 예년의 현상이었으나, 1996년의 경우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6년을 피크로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여 1997년도에는 6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버블붕괴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은 스키관광의 경우 매우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오제의 경우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 즉 오제의 경우 관광객은 버블경제가 시작된 후에도 계속 1996년도까지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의 감소경향도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는 점이 특이하며, 이는 앞서도 언급한 중고년 연령층 관광객의 증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젊은 층이 스키관광의 주가 되는데 반해 이들 은퇴한 연령층은 경기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오제로 들어오는 관광객의 추이를 다른 온천관광지 및 스키관광지들과 비교하여 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片品村內 오제(尾瀨), 온천지 그리고 스키장 지역의 관광객 추이*

관광지 / 년 도	오제(尾瀨)	카타시나(片品) 온천	호타카(武尊)**
1988 년	410,400 人	695,800 人	334,800 人
1989 년	473,450 人	883,860 人	418,850 人
1990 년	505,830 人	1,009,740 人	415,190 人
1991 년	515,100 人	916,610 人	414,420 人
1992 년	539,790 人	1,186,890 人	516,503 人
1993 년	536,355 人	1,065,896 人	486,352 人
1994 년	542,058 人	957,456 人	495,180 人
1995 년	534,196 人	926,489 人	410,570 人
1996 년	647,523 人	977,327 人	356,837 人

*片品村觀光課 조사자료

**호타카(武尊)란 스키장 3개가 밀집되어 있는 片品村의 제3구에 해당하는 하나사쿠(花咲) 지구를 말함 (문옥표, 1994 참조).

III. 관광개발과 자연환경보호운동

1. 오제관광의 대중화와 자연파괴

1940년대 말부터 오제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원시림의 상태에 있던 오제지역 전반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중 하나는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한 늪지대 지반 침하의 문제였다.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약한 늪지대의 지반이 내려앉는 곳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그렇게 내려앉은 지역에 물이 고이게 되면서 늪지 전반의 지형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지형의 변화는 곧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생태계 전반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1940년대, 50년대 등산객들에게 크게 유행하던 '캬라반슈즈'라는 등산화는 늪지대 지형에 더욱 나쁜 영향을 미쳤다 하며 또한 관광객들이 누구의 통제도 없이 아무 곳이나 밟아 버리게 됨으로써 늪지대 지형 및 생태계의 파괴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1940년대까지만 해도 "산 위의 낙원"으로 일컬어지던 아름다운 소습원(小濕原)이었던 아야메빼이 (アヤメ平)는 "대머리 산, 시궁창 못"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거의 완전히 황폐화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 (朝日新聞 前橋支局 編, 1975: 154).

이러한 현상에 대한 통제방안의 하나로 고안된 것이 앞서도 언급한 '나뭇길(木道)'의 설치였다. 나뭇길은 애초 관광객이 늪지대의 진흙길을 걷기에 편하게 하는 동시에, 걸어다니는 지역을 제한함으로써 늪지 자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으나 후에는 후자의 목적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나뭇길의 설치는 후쿠시마현에서 시작하여 1952년부터 3년간 매년 100만円 정도의 예산을 들여 계속되었으며, 군마현에서도 1959년부터 시작하여 1963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체 확장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뭇길은 처음에는 단선으로 설치하였다가 후에 지금과 같이 복선으로 바뀌었는데, 1975년 당시 이미 총연장 60킬로미터에 이르렀다고 한다.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나뭇길은 그러나 대개 10여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하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비용 면에서만이 아니라 나뭇길을 위한 목재를 얻기 위해 산림을 파괴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처음 이 길을 설치할 당시 이 지역의 목재로 하였으나 삼림을 베어내는 것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하여 후에 수입목재로 대체하였으며, 니이카타(新潟)항으로 들어오는 시베리아산 목재나 동남아의 목재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일본의 자연을 지킨다는 명분 하에 다른 나라의 목재를 베어내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자연을 파괴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환경청의 관리들 중에는 궁극적인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나뭇길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들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오제 지역 전역에 이어지는 끝없는 나뭇길은 그 감촉과 나뭇길을 걷는 운치 등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고 있으며, 단지 자연을 보호할 뿐 아니라 조난사고나 진흙길을 걸어야 하는 어려움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반침하의 문제 이외에 또 한가지의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쓰레기의 처리였다. 1960년대 경에 이르러 관광객은 더욱 불어났으며, 그들은 대부분 취사장비를 들고 와서 점심을 해 먹고 빈병, 캔 등을 그대로 버리고 가는 일이 흔하였다. 아직은 지금처럼 나뭇길이 오제 전 지역에 정비되어 있던 상황이 아니었던 까닭에 관광객을 통제할 길이 없었으며, 오제지역의 곳곳이 쓰레기 산으로 변하였다. 1990년대 말인 오늘날의 오제는 쓰레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깨끗한 관광지의 하나가 되었지만 이러한 오제가 만들어 진 것은 1970년초 도로반대운동과 함께 시작된 '쓰레기 들고 돌아가기 운동'의 결실이다. 초창기부터 이 운동을 이끌어 온 주민들에 의하면 운동이 시작된 지 거의 10년 정도가 지나서야 비로소 오제가 어느 정도 쓰레기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한다. 그 이전까지는 관광객들의 호응이 일부에서 있었으나 여전히 보지 않는데서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고야의 사람들이나 운동가들 혹은 주민단체들이 쫓아다니면서 쓰레기를 거두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제 운동이 시작된 지 20여년이 되어 가는 지금 쓰레기에 관한 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이 곳에서 버려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거의 정착되었다 하며, 1998년 필자가 방문했을 때 오제는 거의 버려진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는 관광지였다.

오제의 경우 자동차 도로가 지나지 않는 특별한 위치로 해서 쓰레기가 버려질 경우 단순히 주워 모으는 것 뿐 아니라, 보호지구 밖으로 내보내어 처리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오늘날 관광객들에 의해 버려지는 쓰레기는 크게 줄었으나 오제지역 안에서 영업 중인 숙박시설이나 식당, 휴게소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도 환경오염의 위험을 안고 있다. 현재 오제 특별보호지구 안에는 16개의 야마고야(山小屋)가 영업 중이다. 야마고야란 소규모의 간단한 숙박시설들로 명치초기 오제를 개산하기위해 들어온 히라노 일가에 의해 처음 세워진 쵸오조오고야(長藏小屋) 이후, 1955년경 제1차 오제붐을 맞으면서 크게 늘기 시작하였다. 오제누마(尾瀨沼) 쪽에 있는 3개의 고야는 오제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있던 것들이라 하며 그 후 1950년대 말까지 10여개의 고야가 더 늘어났으나 그 이후에는 오염방지 등을 위해 고야의 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1961년 이후에는 3 개의 고야가 새로이 허가 받았을 뿐이다 (片品村 觀光課, 1998). 자연보호를 위해서는 고야를 전혀 허가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거리상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날로 되돌아 나올 수 없는 까닭에 관광의 유지를 위해 숙박시설을 모두 없애기는 어렵다.

그러나 오제의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문제는 쓰레기와 생활폐수를 처리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소각하며, 재활용품은 헬리콥터로 바깥으로 내 보낸다. 현재 오제안에 있는 고야들은 개별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4] 초오조오고야(長藏小屋)의 경우 캔 등을 압축하여 한 번에 4-5톤 정도씩을 내려보낸다고 한다. 또한 자동차 도로가 없어 물자공급을 받을 수 없는 까닭에 오제지역안에

4) 현재 오제 안에는 福島縣쪽의 입구인 檜枝岐村쪽과 群馬縣 입구인 片品村쪽을 합쳐 모두 25개의 야마고야(山小屋)가 있으며 특별보호지구 안에만도 16개가 영업중이다.

있는 고야에서 사용되는 물자들도 전부 헬리콥터를 이용하거나 전에 나무를 잘라 나르던 시설을 이용한다. 헬리콥터의 운임은 올라오는 경우 1킬로그램 당 125円이며 내려가는 것은 65円이라 한다. 가벼운 짐들의 경우는 '니오이(荷負い)'라 하여 장정들이 지게 같은 것을 이용하여 져 나르기도 하는데 요즘은 특히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것 역시 운임이 매우 비싸다.[5] 이전에는 니오이나 헬리콥터 이외에 말을 가지고 짐을 날라주는 '우마카타상(馬方様)'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며, 특히 세키쇼(關所)가 있던 토쿠라(戶倉)에는 농지도 적고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었던 까닭에 그것으로 생업을 삼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다. 이처럼 오제에서는 "전기와 물 이외에" 모든 것을 날라다 써야하는 까닭에 바깥보다 모든 것이 훨씬 비싸다. 예를 들어 전화나 거스름돈을 위한 동전까지도 날라와야 하는데 운임이 동전의 가치보다도 더 드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오제에서는 관광객들에 의해 배출되는 오물등 생활폐수의 문제도 심각하였다. 관광객의 수가 늘면서 숙박시설들로부터 배출되는 목욕물, 화장실 등 생활폐수에 의한 오염이 더욱 심화되어 현재 모든 생활폐수를 정화하여 파이프라인을 통해 하류로 내보내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는 1997년부터 시작하였으며 1998년 여름 필자가 방문하였을 때는 이미 몇 개의 고야에 공사가 완료되어 전부 수세식 화장실로 바뀌어 있었다. 설치비는 현(縣) 및 환경청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유지관리비는 오제의 고야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2. 자연보호운동: '오제를 지키는 회'의 활동

오제의 환경보호운동은 명치기 이래 오제를 지켜 온 원주민에 해당하는 히라노가(平野家)의 3대째인 平野長靖을 중심으로 시민운동 단체인 「오제를 지키는 회」가 발족된 197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명치기인 19세기말 처음 오제에 들어가 개산한 이래, 지금까지 4대째 오제지역에서 고야를 경영하며 살고 있는 平野家는 그 이전에도 몇 차례 개발의 위기로부터 오제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던 집안이었다. 먼저 처음 오제에 들어 와 정착한 平野長藏씨는 1920년대 오제의 풍부한 수자원(水資源)을 발전에 이용하고자 댐을 건설할 계획이 세워지자 수리권 인가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혼자서 반대운동을 벌였다. 후에 수리권을 획득하고 댐건설계획을 세웠던 '관동수전(關東水電)'은 수리권의 인가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댐건설계획을 유보하였으며, 平野長藏씨는 1930년 갑자기 사망하였다. 그 후 1947년에 다시 오제누마의 취수(取水)공사가 재개되자 이번에는 그의 아들인 長英씨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개발반대운동을 지속하였다. 초창기와 달리 이 때에는 長英씨 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희귀동식물에 관심을 갖고 있던 식물학자, 곤충학자들을 포함하여, 문화인, 등산가 등 많은 사람이 반대운동에 참가하였

5) '니오이(荷負い)'들은 한번에 40-50킬로그램까지도 져 나르는데, 전에는 이처럼 운임을 받고 짐을 져 나르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았으나 점점 사람을 구할 수 없어져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르바이트들을 쓰기도 하며 여름에 정기적으로 이 일을 위해 들어오는 대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다. 비록 이 두 번째의 반대운동은 전후의 경제부흥의 여파에 밀려 실패하고 1949년 취수공사가 완공되었으나, 이 당시 오제의 개발을 반대하기 위해 뜻을 모았던 학자, 언론인, 문화인 등이 결성한 '尾瀨保存期成同盟'은 후에 「日本自然保護協會」로 발전하여 일본 자연보호운동의 모체가 되었다 한다.[6]

오제의 개발위협은 취수공사에서 그치지 않고 그 후에도 계속되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제보호론자들에 의해 수력발전계획과 더불어 오제를 파괴하는 두 가지 큰 원흉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오제를 관통하는 관광자동차도로의 건설계획이다. 이 계획은 뿌리가 매우 깊은 것으로 1940년 일본 후생성의 공원이용계획의 일부로 오제누마의 부근을 지나가는 옛 아이즈가도(會津街道)를 차도화(車道化)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던 데서 시작된다. 이 차도계획은 애초에는 수력발전계획으로부터 오제를 보호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켜나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즉 일본의 국립공원법(1957년 자연공원법으로 바뀜)의 목적은 "빼어난 자연풍경지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 이용의 증진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휴양 및 교화에 활용한다"로 되어 있으며 도로의 건설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朝日新聞 前橋支局 編, 1975: 107).

또한 당시 新潟, 福島, 群馬의 3縣을 지나 일본 열도의 동해안관 서해안을 연결하는 관광, 산업도로의 구상이 있었으며 오제를 지나는 차도도 그러한 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1965년 특별보호지구, 특별천연기념물 지구로 차도를 통과시키는 계획을 3개의 현이 연합으로 요구하기로 결정되었으며, 특히 군마현에서는 "자동차도는 문화재보호의 입장을 존중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편의를 생각하여 차도를 만들어 오제를 보다 많은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朝日新聞 前橋支局 編, 1975: 108). 오제를 통과하는 자동차도의 개설은 인접해 있는 후쿠시마현(福島縣)의 히노에마타무라(檜枝岐村) 및 군마현(群馬縣)의 카타시나무라(片品村) 주민들에게 있어서도 오랜 숙원의 하나였다. 즉 양쪽 모두 발전의 가능성이 없는 벽지 산촌지역이던 두 村에서는 명치이후 거의 쓰이지 않았던 福島縣의 會津若松와 群馬縣의 沼田을 연결하는 옛 아이즈 가도를 근대적 도로로 복원함에 의해 과소(過疎)문제가 해결되고 관광산업에 의한 경제부흥도 기대하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후생성에서는 1965년경 오제보호를 위한 조사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1967년 문화재 보호위원회 및 해당 지역 3현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도로를 포함하는 공원계획을 전면적으로 변경토록 하는 '오제를 지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계획은 특별보호지구를 '차도(車道) 없는 지역'으로 하고 그 때까지의 차도계획은 ① 보호지구의 경계선에 三平峠, 沼田峠를 지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꾀

6) 平野長英씨를 포함하여 29명으로 구성된 尾瀨保存期成同盟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반복하여 시도되었던 댐건설계획에 대한 반대 청원을 국회에 내는 등의 활동을 계속하였다.

한다, ② 특별보호지구내의 숙박능력은 현상(現狀)에 머물게 하고 차도개통에 의해 격증하게될 입산자는 구역 외에 증설하는 숙사에 수용한다, ③ 숙사, 야영장 등의 '집단시설'은 구역내에서는 尾瀨沼, 赤田代 尾瀨溫泉, 山の鼻, 부나페이(ブナ平) 등 4개소에 한정한다, ④ 그 외 오제누마에서 보트 놀이하는 것을 폐지하고, 보도를 통제하여 대폭적인 입입(立入) 금지지역을 설정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부지역의 차도건설을 전제로 하여 당연히 예상되는 입산자의 러시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자연을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후에 자동차도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게 되는 보다 근본적인 보호론자들인 '오제를 지키는 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계획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으며, '보호와 이용'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후생성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비판되었다.

1967년 후생성의 '오제를 지키는 계획'에 의거하여 차도의 루트가 大淸水에서 특별보호구역의 바깥쪽을 도는 코스로 변경되었으며, 코스가 결정되기 전 해인 1966년부터 大淸水부근의 도로확장공사가 착수되어 원생림(原生林)을 베어나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1년 봄눈이 녹은 후부터는 공사속도가 갑자기 빨라져 6월말 경에는 차고 맑은 물로 오래 전부터 등산객들의 오아시스로 알려져 있던 三平峠 중턱의 岩淸水가 파괴되었다. 이 사건은 후생성의 코스변경의 발표와 함께 잠시동안 수세에 몰려 있던 보호론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長藏小屋의 平野長靖은 朝日新聞에 도로건설을 반대하는 투서를 보내는 한편, 시민조직인 '오제의 자연을 지키는 회'의 결성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는 또한 차도공사가 시작된 직후 발족된 환경청을 직접 찾아가 장관에게 오제의 차도건설의 중지를 진정하였다.

1971년 7월 새로 발족하여 업무를 시작한 환경청의 입장에서 볼 때 오제문제는 당시까지 국립공원이나 자연보호 업무를 관장하던 후생성이나 건설성등과 구분되는 환경청 나름의 자연보호행정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平野長靖으로부터 도로건설반대의 진정을 받은 학자출신의 大石武一 당시 환경청 장관은 곧이어 현지를 시찰하고 오제지역을 직접 걸어다녀 보았다 한다. 그 후 장관은 오제개발에 관련되는 新潟, 福島, 群馬 3현의 지사를 초청하여, "① 三平峠에서 沼田峠까지는 도로계획을 폐지하고 공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② 공사는 岩淸水에서 중지하고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이치노세(一の瀨)까지로 하며, 이치노세에서 岩淸水 사이는 걸어다니는 길로 한다, ③ 그 대신 이치노세에는 주차장의 건설을 인정한다"는 세 가지 점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하였다. 관련 3현의 지사들은 처음에는 나라에서 이미 결정한 것을 대안 없이 중지한다는 것은 책임 없는 행정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결국 장관의 안을 받아들여 차도건설을 단념한다고 발표하였다 (朝日新聞 前橋支局 編, 1975: 110). 이러한 결정이 나기까지에는 「오제의 자연을 지키는 회」의 결성준비모임에 의한 서명운동이 큰 영향을 발휘하였다. 1971년 8월 2일 차도건설반대의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는데 20여일 후인 8월 21일 회가 발족될 당시 이미 전국에서 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가하였으며, 9월 30일 현에 제

출할 당시에는 7만7천명에 달하는 대단한 호응을 보였다 (波戶場秀行, 1984: 50).

'지키는 회'는 오제를 지나는 도로의 건설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 후에도 25년간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1996년 해산하였다 (尾瀨の自然を守る會 編, 1997). 이 회는 오제의 차도건설 반대운동이나 앞서 언급한 '쓰레기 들고 돌아가기 운동' 이외에도 주변지역의 수퍼림도(Super 林道) 건설계획 반대운동, 이치노세(一の瀨) 주차장 건설반대운동, 오제 내에서의 합성세제 추방운동, 목욕탕에서 비누·샴푸 안 쓰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은 계속하였다. 그러한 활동은 진정, 연좌데모, 서명운동, 신문에의 투서, 주민설득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루어졌으며, 전국의 다른 자연보호단체들과 연락협의회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오제를 지키는 회'는 초창기 일시적으로 분열된 적도 있었으나, 1970년대를 통틀어 일본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연보호단체였다. 그것은 동경지부 등을 비롯한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국을 돌며 모임을 가지는 단체였다. 그러나 반면 이 회를 중심으로 하였던 오제를 지키는 운동은 주민들로부터 동경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긴자(銀座)의 운동이다'라고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그것은 비록 長藏小屋의 平野長靖씨를 비롯하여 지역출신자들이 몇 명 들어 있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외부출신의 회원이 더 많았다는 점, 그리고 활동의 범위나 추구하는 목적의 면에서 보더라도 이미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에만 충실한 주민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는 단체였기 때문이다. 도로건설 반대운동 중 '오제를 지키는 회'가 발족한지 얼마 안되는 1971년 12월 아직 30대의 젊은 나이에 과로사한 平野長靖씨도 비록 오제에 대대로 살아 온 平野家의 출신이기는 하였지만 (平野長藏씨의 長孫), 쿄오토에서 대학을 나온 후 홋카이도에 가서 신문기자로 활동하다가 1960년대 초 귀향한 사람이었으므로 순수한 지역주민이라 하기는 어렵다.

'오제를 지키는 회'의 이와 같은 지역외적 요소로 인하여 그들의 활동이나 입장은 지역주민들과 대립하기도 하였으며, 그러한 대립은 차도계획 반대운동 및 주차장 반대운동 등에서 명백하게 나타났다. 즉 환경청 장관이 도로연장계획의 중지를 발표하면서 대신 이미 도로가 완성되어 있는 이치노세(一の瀨)에 주차장을 허가할 뜻을 보였으나, '오제를 지키는 회'를 포함하는 자연보호단체들은 이 계획에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大淸水에 이미 400대 이상을 세울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이 세 개나 있으며, 그로부터 오제로 더 들어간 이치노세에 또다시 대규모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오제의 과잉이용(over-use)에 박차를 가해 습원의 파괴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群馬縣측에서는 福島縣의 沼田峠에서 오제로 들어오는 길이 걸어서 30분 정도의 거리인데 반해 群馬縣의 大淸水로부터는 3시간 정도의 거리이므로 양측의 균형을 위해 좀 더 가까운 이치노세에 주차장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치노세로부터 한시간 정도 걸으면 오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환경청 장관의 도로공사중지 방침에 대해서도 群馬縣의 片品村과 福島縣의 檜枝岐村에서는 "지역의 일을 아무 것도 모르는 동경사람들의 반대로 꿈이 사라졌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특히 片品

村에서는 촌내 유권자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3,700명의 서명을 받아 정해져 있던 코스대로 도로를 건설해 줄 것을 요망하는 진정서를 현의회에 제출하였다 (앞 책: 11).[7] 도로건설, 주차장 건설 등을 둘러싼 자연보호단체들과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은 1970년대를 통해 진정과 반대진정, 서명운동, 반대서명운동 등의 형태로 10여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이 투쟁은 시민운동 측의 승리로 끝이나 결국에는 차도계획 및 이치노세의 주차장 건설계획 등이 모두 중지되었으나 지역주민들 중에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당시의 계획변경이 지역발전에 큰 해를 미쳤으며, 비록 도로가 생겼어도 오제를 환경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片品村 관광협회 회장 면담자료).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의 도로계획은 오제지역안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멀리 빙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제 자체를 크게 파괴할 염려는 없었으며, 만일 도로가 생겼다면 관광개발을 떠나 群馬縣과 福島縣 간의 문화교류도 훨씬 활발해졌을 것이며 片品村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한다. 도로라는 건 연결되지 않으면 발전이 있을 수 없는데 당시 도로의 건설계획의 중지됨으로써 지금까지도 片品村은 '유키도마리(行き止まり: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곳)'의 도로로 남아있게 되었으며 촌의 가능성을 크게 제한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당시 도로건설을 찬성하는 주민운동은 외부 환경운동가들이 생각하듯 "도로가 생기면 손님이 더 올 것이고 그러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식의 단순한 발상 때문만은 아니었으며, 보다 종합적인 지역발전을 생각한 사람도 많았다고 주장한다. 그들 역시 "오제에 손님이 와주었으면 좋겠지만 또한 오제를 오랫동안 보존하고 싶은 생각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오제를 지키는 회'에 의한 차도건설계획의 중지는 일본의 자연보호운동의 역사에 남는 큰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환경청의 발족직후 이 운동이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전국의 보호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상징적 사례로 남아 있으며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오제는 자연보호의 핵으로서 모든 자연보호운동단체들의 전면적 지원을 받고 있다.

3. 개발과 보호의 역학: 상반되는 관점들

오제와 같이 인간에 의해 버려지기 쉬운 '자연'이라는 자원에 의존하여 관광산업을 개발하는 지역은 개발과 보호의 균형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곧 관광의 지속가능성의 열쇠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 본 오제의 관광과정은 그러한 균형점을 둘러 싼 상이한 입장들 간의 투쟁의 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 그러한 입장의 차이는 지역의 주민들과 자연보호단체들간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다.

---

7) 그러나 실상 당시 서명에 참가한 片品村 주민의 대다수는 개인적으로 도로건설을 원하고 지역발전을 생각해서이기보다는 같은 촌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로를 가장 원했던 것은 토쿠라의 주민이었으며 서명운동도 그들이 주도하였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리 때문이었다.

관광산업이 가장 중요한 생업을 이루고 있는 片品村과 같은 경우 주민들은 가능하면 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며, 관광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연보호만을 주장하는 주로 외부인들로 이루어진 환경운동단체들의 개입에 대하여 큰 반감을 표시하였다. 사실상 주민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도로건설의 문제는 자신들의 문제이므로 외부자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환경운동측에서는 오제의 자연보호 문제는 단지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전체의 문제이며 나아가 전 인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인식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오제가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에 의하면 오제는 귀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로 일본내에서도 홋카이도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지역을 찾기 어렵다. 그곳의 생태계는 거의 화석과 같이 남아있는 곳이며, 오제와 같은 대규모의 습원(濕原)이 남아 있는 곳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습원(濕原)이란 본래 인간의 발길에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한 번 파괴된 후에는 다시 만들려 해도 만들 수 없는 것인 까닭에 오제는 근본적으로 관광지로 개발되어서는 안되는 지역이라는 주장이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주민들은 당시 촌이 추구하였던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 가능한 한 관광객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오제를 지키는 회'의 활동은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줄일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초창기의 대립구도는 관광개발에 의한 경제발전이라는 지역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주민운동과 자연보호라든가 환경 등 보다 상위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운동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함에 따라 대립구도는 보다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오제를 지킨다는 기본입장이외에 다양한 직업, 년령층으로 구성되었던 '오제를 지키는 회'가 설립 초창기인 1972년 지도부의 방침에 불만을 품은 일부회원들이 '오제자연보호연구회'를 따로 만들어 분리해 나가게 된다. 얼마 안 있어 전국자연보호연합의 중재에 의해 1974년 다시 재결합하게 되지만 이러한 예는 보호론자들 간에도 보호와 개발의 균형점에 대한 견해 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주민들 사이에도 점차 당시 진행되고 있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어서는 오제는 살아남지 못하며 따라서 개발을 보다 제한해야 한다는 보호론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1963년 '오제를 아는 회(尾瀨を知る會)'를 결성하여 스스로 오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每日新聞前橋支局 編, 1975: 118).

또한 당시에는 서명운동 등을 통하여 거의 모두가 도로계획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片品村 주민들이었으나 지금은 그들 사이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도로건설 반대 운동에 앞장섰다가 사망한 平野長靖씨의 부인으로 지금까지 오제에서 고야를 경영하며 자연보호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히라노 노리코(平野紀子)씨에 따르면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게 된 주요 계기의 하나는 1973년의 제1차 오일쇼크였다고 한다.[8] 처음

관광산업이 붐을 타기 시작하였을 때는 모든 주민들이 관광객이 계속 늘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오일쇼크 이후 경기가 갑작스레 나빠지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주민들 중에는 '개발'하지 않아서 잘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9] 또한 그녀는 당시는 도로가 생기면 무조건 지역이 발전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실제 관광산업의 면에서 보더라도 도로를 만들면 片品村의 戶倉이나 福島縣의 檜枝岐村 모두가 통과지가 되어 버려 숙박객 등 관광객은 오히려 줄어들 위험도 있다는 점도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중요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양쪽 모두가 끝이라서 오제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은 두 곳 중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으면 안되며, 그 중에서도 檜枝岐村쪽은 코스가 가깝고 오제의 일부만 보고 돌아갈 경우 하루에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戶倉 쪽은 거리상 하루예정은 어렵기 때문에 도로가 생겼을 경우의 영향도 더욱 컸으리라 는 것이다. 지금도 檜枝岐村의 경우 여관이 5개 정도이나, 戶倉의 경우는 40여개정도가 되며 매년 오제에 들어가는 관광객의 70%이상이 片品村을 통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주민들간에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면서 처음에 찬성했던 주민들 중에도 도로가 났다면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배기가스의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전기자동차가 나오기 전에는" 도로를 내지 않는 편이 낫다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주민들도 이제는 오제가 단순히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의 오제"라는 생각에 동의하며 스스로도 오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이다. 예를 들어 片品村의 부인회(婦人會)에서는 일년에 두차례씩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봄, 가을로 구별(區別)로 돌아가며 오제에 들어가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이식(移植)에 의한 나지(裸地)회복작업에도 대대적으로 참가하였다. 즉 지역의 부인회, 청년회 등의 주민조직 회원들은 촌의 지도(指導)아래 습지에 본래 서

8) 平野紀子씨는 본래 홋카이도 출신으로 신문사에서 일하다 신문기자로 그 곳에 와서 일하던 平野長靖씨를 만나 결혼한 후 1964년 오제에 처음 들어 왔으며, 1970년대 초 남편이 도로건설 반대 운동 중 사망한 후에도 시부모와 함께 계속 이 지역을 지켜왔다. 현재는 오제누마의 동쪽연안에 위치해 있는 본래의 長藏小屋이외에 서쪽의 평원 쪽에 새로 지은 제2의 長藏小屋, 그리고 누마의 서쪽연안에 있는 휴게소, 오제로 들어가기전 片品村의 토쿠라(戶倉)에 위치해 있는 '롯지 長藏' 등 네 개 업소의 대표이다. 시부모가 사망하신 후 혼자서 경영해 왔으나 1997년부터 도시의 기업에서 일하던 장남이 회사를 그만두고 돌아와 대를 잇기 위해 일을 배우기 시작하여 4대째를 맞이하고 있다. 2남도 동경의 국립국어연구소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으나 건강이 나빠져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몇 년 전부터 어머니의 일을 돕고 있다. 현재 노리코가 4개의 업소에서 함께 일하는 종업원의 수는 40명 정도인데, 이들 중 13명은 년간 직원으로 쓰며 나머지는 일년에 6개월 정도 고용한다. 겨울에 폐쇄하는 오제지역내의 업소에도 2명 정도가 계속 머물면서 지킨다고 한다. 平野씨의 현재의 長藏小屋은 1934년 조선으로부터 끌려와 있던 '이왕 전하(李王殿下)'가 오제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하여 그에 맞추어 서둘러 완공한 건물이다. 당시 이왕 전하를 위해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지금도 그 건물이 남아있다.

9) 그러나 실제로 오제관광은 오일쇼크를 전후하여 약간 손님이 주는 듯 하다가 곧 다시 늘기 시작하였으므로 오일쇼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는 할 수 없는 경우였다.

식하던 식물의 씨를 받아 관광객들이 밟아서 버려진 곳에 다시 심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오늘날 오제의 경관이 대체로 회복될 수 있었던 데는 주민들의 이러한 봉사활동이 기여한 바가 크며, 당시 참가했던 사람들에 의하면 땅이 회복되는 속도는 오제가하라(尾瀨ヶ原)쪽이 훨씬 빨랐다 한다.

지역 주민들에 의한 '오제지키기' 활동의 또 한가지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오제에 있는 야마고야(山小屋) 조합의 회원들은 또한 7년정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숙박업소 정원제이다. 그 이전에는 손님이 있는 대로 다 받고, 많은 때는 다다미 한 조되는 넓이에 2-3명씩 재우기도 하였으나 그렇게 할 경우 급작스레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됨으로써 환경오염이 심화될 뿐 아니라 방문한 관광객에게도 오제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각 업소마다 다다미 한 조에 한 명씩으로 정원을 제한하고 신청자가 있더라도 정원 내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조합원 중에는 처음에 그렇게 하면 손님이 줄고 결과적으로 연간 수입이 줄 것을 염려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초창기부터 고야를 경영해 오던 長藏小屋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손님이 평균화하여 일하는 사람들도 편해지고, 손님들도 여유가 있으며 예약만 하면 잠자리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는 효과 등이 나타났고 특히 환경오염도도 줄일 수 있는 이점들이 인식되어 지금은 모두 만족하고 있다.

숙박시설의 정원제(定員制)의 실천과 같은 활동은 주민들의 합의 도출과 자발적 의식의 고양이라는 점등에서 매우 소중한 성과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오제의 보호지구 안에서 고야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들어오게 된 동기도 모두 다르며 경영방침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견해도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그들간의 합의를 얻어낸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제 안에서 명치기부터 고야를 운영해 온 히라노 일가의 경우 비록 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제의 원주민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다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고야의 운영자들 중에는 단지 상업활동만이 목적인 경우도 있다. 즉 그들 중에는 1950년대 오제에 나뭇길의 건설이 추진될 때도 언제나 벤치 삼아 앉을 수 있는 나뭇길을 오제의 도처에 만들어 놓으면 고야에 들어 와 식사를 하는 손님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으며, 나뭇길이 생기면 관광객이 5배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겨우 동의를 얻어낸 적도 있었다 한다. 뿐만 아니라 오제의 고야들 중 많은 수는 이 지역에 댐건설 및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東京電力의 자회사(子會社)인 오제임업(尾瀨林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모두를 설득하여 정원제를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의식 높아졌으며, 또 한편으로는 자연보호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주민들의 의식변화의 과정은 오늘날 오제의 보존과 관광개발의 문제는 단순하게 주민들과 주로 외부인들로 이루어진 환경운동단체들간의 대립으로만 이해 할 수 없음을 시사해 준다. 물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운동의 초창기에 대립의 양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주민들 간에도 어느 정도 오제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또한 스스로 자치적으로 관광개발과 오제의 자연을 지키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최근에는 관광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자연보호운동을 계속해 왔던 주민들과 현(縣)정부나 중앙정부의 환경청간에 새로운 갈등의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그 사례의 하나로 최근 결성된 오제보호재단을 들 수 있다. 오제보호재단은 환경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군마현, 후쿠시마현, 니이카타현의 세 개의 현지사들의 합의하에 주로 기업으로부터의 모금을 통하여 1996년에 결성한 단체이다. 초창기에 공동으로 도로건설을 요청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3현은 협동하여 오제의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에서 설립한 재단이다. 자연보호사업으로 재단에서는 오제 지역 내에 두 개의 '방문객 센터(Visitor Centre)'라는 것을 설치하여 두고 (한 개는 福島縣에서 다른 한 개는 群馬縣에서 운영하고 있다), 직원 및 볼런티어들을 파견하여 관광객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쓰레기 버리는 행위를 감시하며, 이미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일이나 자연관찰 등을 하고 있다. 매년 오제의 방문객 센터에는 17-18명의 볼런티어들이 파견되어 이러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으나 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볼런티어의 수는 6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 볼런티어들은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오제의 자연보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平野紀子씨등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정도의 일은 그간 그 일을 계속해 온 주민환경단체에 일임하였어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필요 없는 인건비·시설유지비를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호재단의 설립 당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기업 중의 하나가 그 동안 오제지역 댐건설 및 수리권 문제를 놓고 주민 보호단체들과 줄곧 대립해 왔던 전력회사라는 사실도 보호재단의 의도가 주민들로부터 의심을 사고 있는 이유의 하나이다.[10]

또한 보호재단이나 주민들의 활동과는 별도로 중앙정부의 환경청에서도 환경감시 및 국립공원 관리 등을 명목으로 오제지역내에 숙사를 지어놓고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이들의 일은 보호재단의 일과 중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단의 방문객센터가 세워지기 전에는 두 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있었으나 일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그 후 한 명으로 줄였으나 그나마 시설만 있을 뿐 거의 항상 비어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국가의 환경정책이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해 가면서 추진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주민들은 오제의 문제는 현지에 살고 있는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동경에 있는 환경청의 집무실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나라'의

10) 그 동안 몇 차례의 합병, 인수 등의 과정을 거쳐 오제의 수리권을 소유하게 된 동경전력에서는 결국 여론에 밀려 1997년 최종적으로 오제누마에 댐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방기(放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을 '민(民)'과 함께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일본의 관공서들은 '일본을 어떻게 좋게 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아마구다리'등 각자 자신들이 속한 부서를 살찌우는데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점은 현(縣)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처럼 많은 돈을 들여 새로운 시설을 짓고 직원을 고용하기보다는 (필자가 조사를 위해 현지를 방문하였을 당시 長藏小屋 옆에 위치한 재단의 「방문객 센터」에는 2명의 직원과 7-8명의 볼런티어가 있었으며, 관광객을 위하여 오제의 자연을 알려주는 슬라이드쇼를 열고 있었다), 애초부터 그 기금으로 주민환경단체를 지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현재 재단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구상되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오제 안에서 고야를 경영하고 있는 주민들과 환경청이 대립하는 또 하나의 쟁점은 오제에 전기를 끌어드리는 문제이다. 현재 오제누마 쪽에만 전기가 들어가 있고 오제가하라 쪽에는 그렇지 않은데, 환경청 및 외부의 환경운동단체들은 그 쪽에까지 전기를 끌어들이면 오제의 전체적인 경관 및 자연이 변하게 된다고 하여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가 들어와 있지 않은 까닭에 오제내의 고야들은 개별적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쓰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경유를 날라다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고야의 경영주들 입장에서는 한 고야당 평균 3-4대씩 발전기를 돌리기 때문에 경유를 태워 발전하는데 따른 환경적 악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여 계속 환경청에 전기를 끌어 들여 줄 것을 진정하고 있으나 환경운동가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사례가 현지의 실정을 알지 못한 환경정책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초창기의 오제 관광개발을 둘러싼 문제가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이 없이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였던 지역 주민들과 지역주민의 생업을 고려하지 않고 보존을 강조하였던 외부의 운동가들 간의 대립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모든 측에서 보호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들간의 협동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혼선으로 보여진다. 초창기의 보호운동을 주도했던 '오제를 지키는 회'가 비록 외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이었다 하나 그 중에는 히라노 일가와 같은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의 사정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오히려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현(縣)이나 환경청 등 모두 자연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들의 정책이 항상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오제를 지키려는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부인회 등 지역주민 조직을 중심으로 오제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펴 오던 쓰레기 줍기 등의 봉사활동들 마저 오제보호재단이 생긴 후에는 재단에서 하는 일이라 하여 모두 폐지하게 된 것 등이 그런 예라 볼 수 있다.

Ⅳ. 결 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가능성

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 국내에서는 명치시대부터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 관광지이면서, 동시에 특히 1970년대이래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 환경 보호운동의 대명사로 알려지게 된 오제(尾瀨)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관광개발과 환경보호 간의 갈등적 관계를 극복하고 소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작업은 그 자체의 연구가치뿐 아니라, 나아가 응용인류학적 입장에서 오늘날 한국의 농산어촌을 포함하는 지방사회가 처한 현실에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개발전략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으로 참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1994년 지방자치제가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국내의 여러 지자체들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의 하나로 관광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을 관광자원화하여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민소외의 문제, 환경파괴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국내외의 경험적 사례들을 참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 양반가옥들과 마을 경관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경북 안동지방의 하회마을의 경우, 1984년 마을 전체와 주변지역이 국가 중요 민속자료 제122호로 지정된 이후 '민속마을'로 관광지화되어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생활 침해의 문제, 무분별한 매점이나 식당 등의 개업으로 인한 마을 경관 파괴의 문제, 쓰레기 및 생활용수 처리의 문제 등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 편에서나 관할 관청에서나 이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서 마을 경관이 급속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하회마을과 주변지역은 최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농산촌 마을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에 성공한 岐阜縣의 白川村과 같은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 (문옥표, 1998 참조), 그 이외에도 농림업의 쇠퇴 및 과소화 문제 등 우리와 유사한 여건에서 관광개발을 통한 농산어촌의 진흥을 모색해 온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농산어촌과 도시간의 교류"를 목표로 하는 녹색관광(green tourism) 의 발상 등 관광개발과 자연환경 및 문화전통 보존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유용한 응용적 지식을 제공한다 (岡島成行 編, 1994; 依光良三·栗栖裕子 編, 1996; 脇田武光·石原照敏 編, 1996; 松村和則, 1997).

관광개발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문화전통이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소위 지속가능한 개발, 즉 「환경+생활+관광」의 공존모델이다. 오제의 경우는 관광지로 개발되기 시작한 이후 개발론자들과 보호론자들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비교적 성공적으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지역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선 무엇보다 오제를 두 가지의 큰 위협, 즉 수력발전을 위한 댐의 건설계획 및 오제를 관통하는 자동차도로의 건설계획을 저지하고 오제를 지킬 수 있었던 데 있다. 만일 댐이 건설되었다면 오제지역의 대부분은 수몰되어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것이며, 자동차 도로의 관통 역시 오제의 자연보호에는 치명적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오제에서는 자연보호단체들의 끈질긴 노력과 주민들의 인식전환으로 1960년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크게 훼손되기 시작했던 자연환경을 회복하는데도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현재에도 오제의 개발과 보존의 균형점에 관해서는 관련주체들간에 많은 이견(異見)이 존재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자연보호론자들이나 생태학자들은 오제는 애초부터 관광지로 개발되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며, 지금이라도 관광객의 수를 극도로 제한하는 조처들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모두가 모여 재미있게 즐기는 관광지와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연자원으로서 보존해야 할 곳은 구분해야 하며 오제는 후자에 해당하는 곳인 까닭에 관광객을 들여보내더라도 근처에 가서 보는 정도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관광지로 개방되어 사람이 들어가면 여러 곳으로 이동해 다니며, 쓰레기를 버리게 되고 또 배설물등이 나오는 까닭에 자연현상의 파괴는 불가피하며 그러한 파괴는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관광을 생업으로 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자연보호에 관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고양된 것은 사실이나, 片品村이나 특히 戶倉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 관광산업 이외에는 생업이 불가능한 주민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양자를 조절하기 위한 안으로 '수용능력(capacity)'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오제와 같은 공개된 자연환경의 수용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처음에는 숙박객으로 제한하였으나 그러자 숙박하지 않고 그 날로 돌아가는 '히가에리(日歸り) 손님'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손님들은 또한 오제의 일정지역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서 그 폐해 또한 매우 심각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오제지역으로 들어가는 모든 방문객에게 비싼 입장료를 받음으로서 제한해 보고자 하는 방안 등도 고려중이나 그것은 보존과 동시에 '이용의 증진'을 추구하는 일본의 '국립공원' 관련 이념이나 여러 법조항에도 위배되는 까닭에 어려움이 있다. 관광객을 받으면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관광객을 교육하는 것이다 (오제 고교 생물학 교사와의 면담자료). 즉 적어도 오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다른 곳을 찾는 행락객들과 같이 그들의 행위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과는 달리 개념화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서 들여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1970년대이래 일본 전국적으로 일어난 환경보호운동은 국민 전체의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오제로 들어가는 관광객들도 그러한 사회전반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많이 계몽, 교육된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오제의 관광객들도 자신들의 쓰레기는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것으로 알며, 오제에 들어가면 숙박업소에서도 비누와 샴

푸를 쓰지 않고 더운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으로 목욕을 대신해야 한다는 것 등을 당연히 받아들인다. 만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그 여행 팀을 인솔해 온 여행사 및 해당 지방자치체의 관광과로 연락이 가며, 만일 학생들일 경우 학교에도 연락하여 주의를 주도록 하는 등 감시체제도 철저한 편이다. 이러한 생태환경에 민감한 관광양식이 정착하기까지에는 '오제의 자연을 지키는 회'와 같은 시민운동 단체들의 활동이 빼 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하였다. 그들의 폭넓은 활동은 매스컴 등을 통하여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환경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과 보존의 균형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의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 주민들을 주체적으로 참가시키도록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요청된다.

그런 점에서 최근 片品村에 접한 利根村에 위치해 있으며 片品村의 대부분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명칭이 1996년부터 '호타카(武尊)고교'에서 '오제(尾瀬)고교'로 바뀐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호타카'란 片品村내에 위치하고 있는 영산(靈山)의 하나로 이 일대에는 호타카 신앙이 널리 퍼져 있으며, 고대의 무사(武士)였다는 호타카사마(武尊樣)는 많은 마을 神社에서 수호신(鎭主)으로 모셔지고 그에 관한 다양한 전설들도 남아 있다 (문옥표, 1994). 따라서 '호타카'란 곧 이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나타내는 말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촌지역의 과소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 학교는 학생 수가 줄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학교의 명칭을 오제고교로 바꾸고 많은 예산을 들여 환경교육시설을 설치한 群馬縣의 최근 결정은 오제의 자연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그것을 지켜 가는 데 주민들이 주체적 역할을 해야함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제고교에는 명칭의 변경과 더불어 환경과가 새로이 신설되어 지역 내에서 오제에 관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을 교육시킴으로서 지역주민인 그들 부모의 의식이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명칭의 변경은 또한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현대 일본의 가장 중요한 담론의 하나인 자연보호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오제'라는 이름을 취함으로서 지역사회를 전체사회에 새롭게 위치 짓고 지역의 주민들에게나 외부인들 모두에게 지역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는 결정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한 점은 학교의 명칭이 호타카에서 오제로 바뀌고 환경과가 신설된 후 이 학교에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내의 타지역으로부터 찾아오는 유학생들까지 생겨났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참 고 문 헌

嘉田由紀子(카다유키코). 1992.「ホタルの風景論: ホタルを通してみた水環境認識」. 古川彰(후루카와 아키라)·大西行雄(오오니시유키오) 編『環境イメ-ジ論:人間環境の重層的風景』. 東京: 弘文堂.

岡島成行(오카시마 나리유키)編. 1994.『自治體·地域の環境戰略 3: 自然との共生をめざして』. 東京: ぎょせい.

溝尾良隆(미조오 요시타카). 1994.『觀光を讀む: 地域振興への提言』. 東京: 古今書院.

권숙인. 1996.「현대일본사회와 전통(성)의 공간」.『한국문화인류학』27집.

_____. 1997.「근세 일본에서의 대중관광의 발달과 종교」.『지역연구』6권 1호(1997년 봄호).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김일철. 1994.『일본농촌과 지역활성화운동』. 서울: 나남.

毎日新聞社 前橋支局 編. 1990.『開山 100年·世界の 寶·後世に: 尾瀨, その風の中に』. 前橋: 毎日新聞社.

문옥표. 1991.「후기산업사회에서의 농촌의 위상: 1980년대 일본 농촌부흥운동의 의미」.『농촌사회』 창간호. 한국농촌사회학회.

_____. 1994.『일본의 농촌사회: 관광산업과 문화변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_____. 1995.「지방자치와 지역문화의 활성화」.『정신문화연구』18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_____. 1997.「일본관광의 사회조직: 단체여행의 역사와 문화」.『지역연구』6권 1호(1997년 봄호).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_____. 1998.「일본농촌의 관광개발과 지역활성화」.『농촌사회』8집. 한국농촌사회학회.

尾瀨の自然を守る會 編. 1997.『尾瀨を守る: 自然保護運動25年の步み』. 前橋: 上毛新聞社

山村經濟研究所 編. 1994.『山村が壞れるその前に: あぶない日本の水と綠』.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松村和則(마츠모토 가즈노리) 編. 1997.『山村の開發と環境保全: レジャ-·スポ-ツ化する中 山間地域の課題』. 東京: 南窓社.

柿崎京一(가키자키쿄오이찌). 1998.「"合掌造り" 集落保全運動の軌跡」. 岐阜縣 白川村 敎育委員會 編.『白川村史(改訂版)』.

日本觀光公社(Japan Tourist Bureau, JTB). 1998.『'98 るるぶ尾瀨』. るるぶ情報版 關東 20.

依光良三(요리미쯔 료오조)·栗栖裕子(쿠리스 유우코). 1996.『グリン-·ツ-リズムの 可能性』.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鳥越皓之(토리고에 히로유키). 1989.『環境問題の社會理論: 生活環境主義の立場から』. 東京: 御茶の水書房.

朝日新聞 前橋支局 編. 1975.『はるかな尾瀨』.

足羽洋保(아시바 히로야스) 編. 1994.『新·觀光學 槪論』. 東京: ミネルヴァ書房.

村落社會研究會 編. 1991.『轉換期農村の主體形成: 農村社會編成の論理と展開 III』. 村落社會研究 27. 農山漁村文化協會發行.

波戶場秀幸(하토바 히데유키). 1984.『尾瀨の足あと: 尾瀨歷史年表』. 前橋: 煥乎堂.

平野與三郎(히라노요사부로). 1985.『山人の賊 II: 尾瀨に生きた最後の獵師』. 東京: 白日社.

脇田武光(와키타 타케미츠)·石原照敏(이시하라 테루토시) 編. 1996.『觀光開發 地域振興 解說 事例』.

東京: 古今書院.

後藤 允(코토 ...). 1984.『尾瀬山小屋三代の記』. 東京:岩波新書 263.

DuPuis, E. Melanie & Peter Vandergeest. 1996. *Creating the Countryside: The Poilitics of Rural and Environmental Discours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Graburn, Nelson H.H. 1995. "The Past in the Present in Japan: Nostalgia and Neo-traditionalism in Contemporary Japanese Domestic Tourism". In Richard Butler and Douglas Pearce, eds. *Change in Tourism: People, Places Processes.* London: Routledge.

Kajiwara, Kageaki. 1997. "Inward-bound, Outward bound: Japanese Tourism Reconsidered" In S. Yamashita, Kadir Din & J. S. Eades, eds. *Tourism and Cultural Development in Asia and Oceania.* Bangi: Penerbit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Martinez, D.P. 1990. "Tourism and the *ama*: the search for real Japan." In Ben-ari, E., B. Moeran & J. Balentine, eds. *Unwrapping Japan: Society and Culture i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Moon, Okpyo. 1989. *From Paddy Field to Ski Slope: The Revitalisation of Tradition in Japanese Village Lif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_____. 1997a. "Marketing Nature in Rural Japan." In Pamela J. Asquith and Arne Kalland, eds. *Japanese Images of Nature: Cultural Perspective,* London: Curzon Press.

_____. 1997b. "Tourism and Cultural Development: Japanese and Korean Contexts." In S. Yamashita, Kadir Din & J.S. Eades, eds. *Tourism and Cultural Development in Asia and Oceania.* Bangi: Kebangsan University Press, Malaysia.

Smith, Valene, ed. 1989. *Hosts and Guests: The Anthropology of Tourism.* (2nd editi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TOURISM DEVELOPMENT AND NATURE PROTECTION MOVEMENT IN OZE, JAPAN

Okpyo Moon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rough a case study of Oze in central Japan, the process by which a balance between tourism, development and nature preservation is attained and maintained in a way that guarantees its sustainability.

Oze is an area well-known for its precious natural tourist resources, highland marshes, lakes, plants and numerous mountains over 2,000 meters above sea level that has been developed as a tourist area since early this century. The area has been able to sustain tourism by successfully resisting several development projects that may have proved fatal to the preservation of the area. Oze is also an area that has succeeded, mainly through concerted efforts of nation-wide nature protection movements and gradual improvement in environmental consciousness of the local residents, to recover and protect a considerable part of marsh land and the overall landscape.

This study has shown the nature of conflicts that existed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of tourism developmental process-the local residents, the tourists, the environmental activists, the municipal government and the state; and then analysed the dynamics that lies in the background of the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What is ultimately argued here is that 'sustainability' in tourism development depends not so much on a temporarily reached consensus but on the ability of the relevant parties to maintain it by continuous manipulation of different perspectives and changing interests. What the case of Oze presents to us is the fact that, while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movements has been the major force that enabled the area to escape destruction at an initial stage, what will sustain the situation is the local residents themselves whose perspectives and understanding of the issue have been greatly widened in the process of the whole struggle.

문옥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 69동 10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문화인류학과 교수. Tel: 532-5011, 0342-709-5934, E-mail: opmoon@aks.ac.kr.